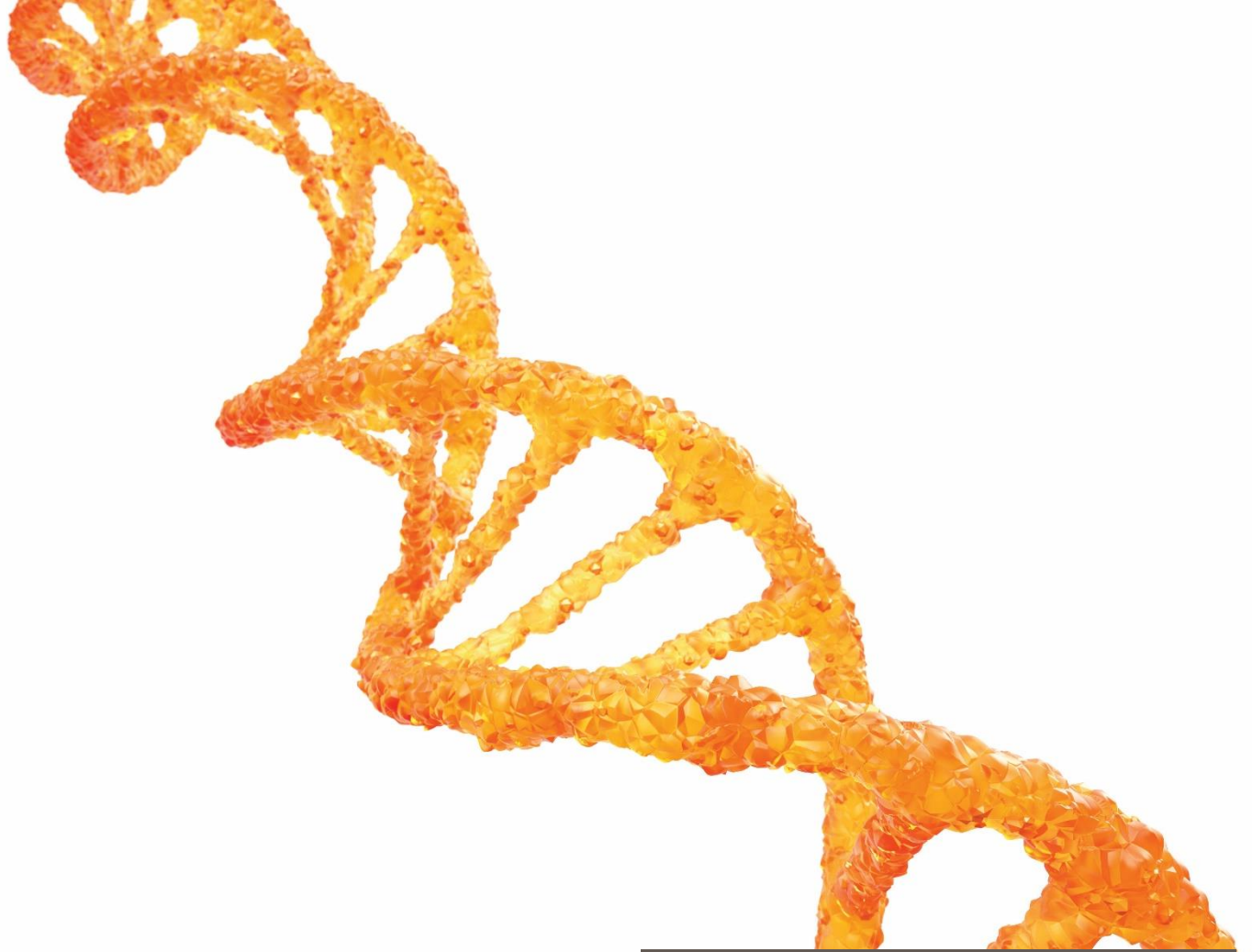


A science-led global healthcare company
with a special purpose to help people
do more, feel better, live longer

GSK Press Kit 2020-2021



GSK Press Kit 2020

목차

한눈에 보는 GSK	3
새로운 GSK 를 위한 준비	9
GSK 사업 현황	11
GSK 수상 이력	12
Innovation based Performance	13
Trust	19

한눈에 보는 GSK

Who we are

**A science-led global healthcare company
with a special purpose to help people
do more, feel better, live longer.**

GSK는 과학 기반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사람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do more, feel better, live longer) 돕는 것을 사명으로 혁신적인 치료제, 백신,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을 연구 및 개발,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전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GSK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전세계에 약 23억 팩의 의약품, 7억 1천만 도스의 백신, 42억개의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을 공급했다.



**Why
we do it**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do more,
feel better, live longer)
돕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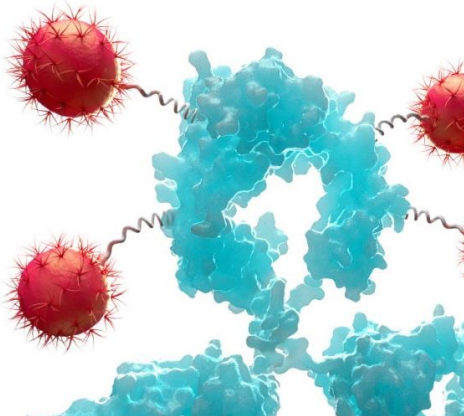
Kimberley
Ovarian cancer patient

gsk

What we do

GSK는 3개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의 과학과 기술력,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헬스케어 제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개의 글로벌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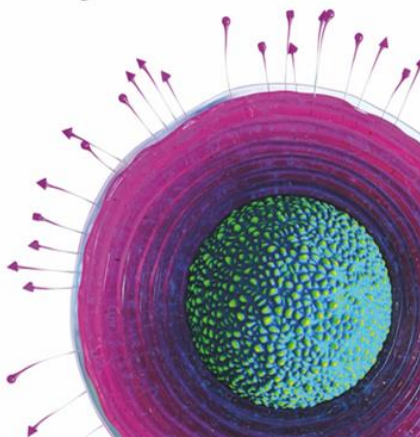


Antibody with cytotoxic drug attached

제약 (Pharmaceuticals)

호흡기, HIV, 면역염증 및 종양학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며 다양한 혁신 신약 및 만성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또한, 면역학 및 인간 유전학, 첨단 기술에 집중된 R&D 전략을 통해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 50 년 동안 천식, COPD 등의 호흡기 질환 치료제 분야 선도
- 최초의 HIV 치료제 개발 및 HIV 치료와 예방법 혁신에 대한 헌신
- 루푸스, 류머티스 관절염 등 면역-염증 분야 연구 강화
- 15 개 종양치료제를 비롯해 39 개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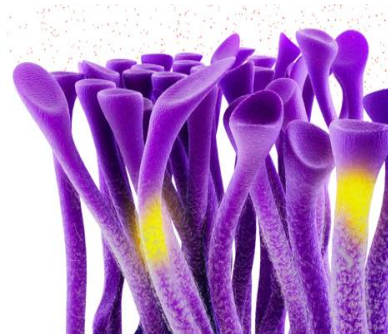
Herpes zoster virus of shingles

백신 (Vaccines)

GSK는 세계 최대의 백신 기업*으로서, 전 연령기에 걸쳐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백신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GSK는 의료적 수요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 world's largest vaccines company by revenue*

- 22 가지 질병에 대해 40 종 이상의 백신 제공
- 15 종의 새로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중
- 글로벌 폴리오 퇴치운동, GAVI 백신연합의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자궁경부암 백신 공급 등



Nociceptors, the sensors of the pain pathway

컨슈머 헬스케어 (Consumer Healthcare)

과학 및 소비자 인사이트에 기반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혁신적인 일상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한다.

- 2019 년 화이자와 새로운 컨슈머 헬스케어 합작회사 설립 합의 완료
- 구순구개열 환아의 수술 지원을 위한 Smile Train 프로그램 진행
- Sensory Lab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 예측

How we do it

장기적인 3 가지 중점 과제

GSK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며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의 글로벌 비즈니스, 과학적·기술적 노하우, 우수한 인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고품질의 획기적인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GSK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성장, 리스크 최소화, 장기적인 성과 개선을 목표로 3가지 전략적 우선순위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전략적 우선순위는 혁신(Innovation), 성과(Performance), 신뢰(Trust)로서 GSK의 전 직원은 이 3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GSK는 항상 환자 이익을 최우선 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치'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Our long-term priorities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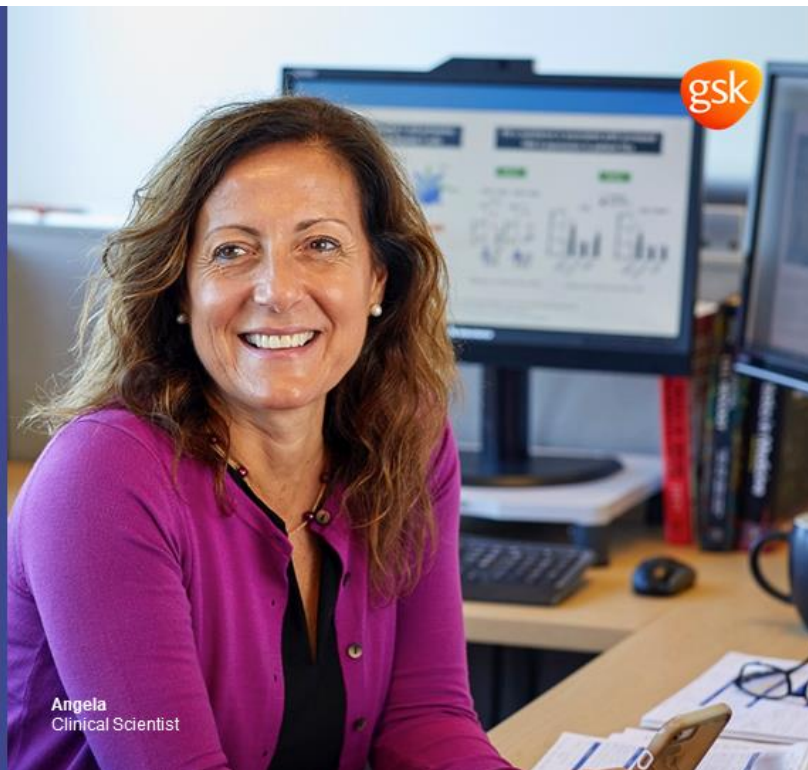
혁신 (Innovation)

혁신은 GSK의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이다. 환자, 보험자,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개발 및 출시하기 위해 최고의 과학 및 기술 역량에 투자한다.

Our long-term priorities Innovation

첨단기술

인공지능(AI)을 통해 GSK의 전문가들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결합하고 있다. 더 많은 비밀을 풀어낼 수록 예측은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첨단 기술을 강력한 유전자 데이터세트와 결합함으로써, GSK 성공률을 두 배로 높이고 환자에게 더 많은 변형 의약품(Transformational Medicines)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gela
Clinical Scientist

GSK는 연구개발(R&D) 조직을 정비하여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향상된 치료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 HIV 등에서 신약 출시, 최초의 말라리아 후보 백신 개발, 대상포진 후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3상 임상 결과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GSK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전문성을 동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 페이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2018년 7월 이후 14건의 의약품 및 백신이 신규 승인 획득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

(2020년 7월 기준)

50

HIV, 호흡기 질환 및 종양학 치료제 포함, 파이프라인 내 의약품(35개)과 백신(15개) 제품은 50여개에 달한다.

(2020년 7월 기준)

15

단 2년 만에 GSK는 R&D 파이프라인내 잠재적 종양학 치료제 수를 두 배가량(15개) 늘렸다.

4-8-6

2019년에 GSK는 신규 4개 파이프라인의 자산이 주요 임상을 진행 중이며, 8건의 허가 제출, 6건의 긍정적 주요 임상을 도출해냈다.

Our long-term priorities

Performance

성장(Performance)

GSK는 효율적인 사업 투자, 인재 개발, 올바른 실행을 통해 업계 선도적인 성장을 이룬다.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모델을 혁신하며 비즈니스의 변화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338 억

2019년 글로벌 총 매출액
(한화: 약 51 조 4 천억원)

£46 억

2019년 글로벌 R&D 투자액
(한화: 약 7 조원)

1 위

돌루테그라비르는 HIV 치료를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인테그라아제 억제제다. 7 백만 명 이상의 HIV 환자가 돌루테그라비르를 기반으로 치료 받고 있다.

No.1

OTC(over-the-counter) 의약품 및 치료용 구강건강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Pfizer와 합작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다.

Our long-term priorities

Trust

신뢰(Trust)

GSK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의 과학 기술을 활용해 보건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제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 및 영업·마케팅 모델의 혁신, 임상자료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에볼라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 소외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1 위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제약 부문 1위

다양성

스톤월 LGBT+ 권리 단체에서
글로벌 최고의 고용주로 인정

3 백만 명

매년 5 억명 이상의 개발도상국 5 세 이하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GSK는 과학 기술에 집중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세 가지 보건 문제인 HIV, 말라리아, 결핵의 변화를 돕고자 한다. 세이브더칠드런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3 백만명 이상의 어린이를 도왔고, 임직원과 함께 62 억원 가량의 기금을 모금했다.

Our culture

기업 문화

GSK는 목표 달성과 마찬가지로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가치와 기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에 있다. 우리는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전달하고, GSK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GSK는 가치 중심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환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GSK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살 수 있도록 (Do more, Feel better and Live longer)'

돕겠다는 GSK의 꿈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업 활동 전반에서 항상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Our culture

우리의 가치와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

COVID-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2만 명이 넘는 직원이 전 세계의 제조 현장과 R&D 연구에서 계속해서 일해왔다. 신제품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 역시 보장했다.

또한 약 8만 명의 직원이 재택 근무로 전환하여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업무 방식에 빠르게 적응했다.



Brittany, Amy and Taylor
Scientists working through
the pandemic

새로운 GSK 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GSK CEO 엠마 월슬리(Emma Walmsley)의 메시지



GSK 는 수 억명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2 개의 선두 기업을 탄생시킬 다시 없을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R&D 및 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라는 최우선 과제와 더불어, 컨슈머헬스케어 합작사 통합을 완료해 나가면서, 동시에 2 개의 새로운 기업에서 포착되는 기회들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2 년 기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Future Ready'입니다.

Future Ready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혁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치료제, 백신 및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여를 지속할 것이며, 이는 바로 우리가 GSK 에서 일하는 큰 이유입니다.

새로운 두 회사를 위한 분할 준비

GSK 의 최우선과제는 R&D 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것이다.

과제 달성을 위해, GSK 는 바이오제약회사와 컨슈머헬스케어 회사로의 분사 준비를 도울 새로운 2 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두 회사 모두의 역량과 비용 기반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GSK 와 새로운 컨슈머 헬스케어 회사 모두에 내재된 가치 창출의 기회 실현을 지원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를 'Future Ready'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할 후 제약/백신 사업을 담당하게 될 New GSK 가 면역 체계 관련 과학과 유전학 및 신기술 사용에 초점을 둔 공통적인 R&D 접근법을 가진 바이오제약 선도기업으로 설립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 R&D 로의 공통적인 접근법은 예산 배분, 기술 및 과학 전문지식 공유, 방식(Modality)에 관계없이 모든 파이프라인의 구축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글로벌 지원 기능의 역량 및 효율 개선을 위해 절차 및 체계를 계속해서 간소화하고 업계 기준 대비 더 나은 비용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팀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스페셜티 제품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망 또한 계속해서 간소화하고 재조정 할 것이며, 품질, 안전 및 서비스에 끈질기게 집중하여 운전 자본 관리, 생산성, 조달 등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자산 매각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처방용 피부과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처분을 검토 중이다.

Future Ready 프로그램은 분할된 새로운 컨슈머 헬스케어 회사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독립기업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경영지원 기능의 구축도 이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화이자의 브랜드와 사업을 새로운 컨슈머 헬스케어 회사에 완전히 통합하고, 계획했던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투자할 것이다.

이번 회사 분할을 촉매로, GSK의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와 2년의 Future Ready 프로그램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R&D 및 신제품에 대한 투자

성공을 위해서 GSK는 R&D 및 신제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에 R&D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표 한 이후, 특히 종양학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

- 현재 35개의 의약품과 15개의 백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 2019년에 3개의 주요 승인, 8건의 등록 건 수, 6개의 긍정적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얻었고
- 4개의 새로운 자산이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GSK는 테사로(TESARO)의 인수를 완료하였으며, 종양학 분야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머크 사(Merck KGaA)와 제휴를 체결하였다. 또한 플랫폼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학과 협력하고 세포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라이엘 이뮤노파마(Lyell Immunopharma)와도 협력하고 있다.

New GSK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제약과 백신 전반에 걸쳐 공통된 연구개발 접근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SK는 보다 효과적으로 자본을 할당하고 기술 및 과학적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바이오파마 회사를 위해 방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GSK 사업 현황

GSK Group: 글로벌 사업 현황

GSK는 세계 95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으며 약 9만 9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본사는 영국 미들섹스 지방 브랜포드 시에 있다. 영국,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등지에 첨단 R&D 시설을 갖추고 전세계 약 16,000 명의 R&D 인력이 새로운 치료제, 백신,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경영진

CEO 엠마 월슬리(Emma Walmsley)

338 억 파운드

2019 년 총 매출

한화 약 51 조 4 천억 원

+1.9% AER
+2.4% CER

38 억 파운드

최근 5 년 내 출시된 제약
및 백신 신제품 매출

2018 년 17 억 파운드
2017 년 4 억 파운드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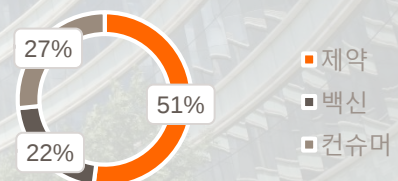
176 억 파운드
+2% AER, +0% CER

백신

72 억 파운드
+21% AER, +19% CER

컨슈머 헬스케어

90 억 파운드
+17% AER, +17% CER



*AER (변동환율), CER (고정환율)

GSK in Korea: 국내 사업 현황

GSK는 1986년 처음 국내에 진출한 이래 환자, 소비자를 위한 우수한 의약품(치료제 및 백신)과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글로벌 R&D 임상연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의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수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GSK 한국법인 및 GSK 컨슈머 헬스케어 코리아 두 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제약사업: 호흡기 질환, HIV, 비노기 질환, 면역/염증 질환 등에 대한 치료제 제공
백신사업: 소아에서부터 노인의 질환 예방을 위한 폭넓은 백신 포트폴리오 제공

GSK 한국법인

일반의약품 및 구강건강, 피부건강 등
과학 및 소비자 인사이트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헬스케어 제품 제공

GSK 컨슈머 헬스케어 코리아

주요 경영진

대표이사 사장

줄리엔 샘슨(Julien Samson)

대표이사 사장

강상욱

직원 수

445 명

122 명

2019 년 공시매출

3,165 억 원

971 억 원

사무소

서울 본사(용산) 및 지방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GSK 수상 이력

GSK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의 과학 기술을 활용해 보건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제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임 있는 가격 책정, 전략적인 접근성 계획 및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사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의약품 접근성 등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연속 1위 수상



202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외국계 제약산업 부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총 1만 3,555명 대상 설문

2018,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환자 중심 혁신, 성장, 신뢰를 추구하는
모습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제약기업 선정



제19회 국제백신학회 우수백신산업시상 (2019)

2018 최우수 예방백신상
(대상포진: 국내 미허가)

2017 최우수 예방백신상
(수막구균 B형청균: 국내 미허가)

2016 최우수 제약기업상 등

6년 연속 1위 (비브헬스케어)



2020 다우존스 지수 sustainability 제약부문 1위

2018 제약사 평판 인식 조사 최고의
제약사

78개국 1,500개 환자단체 대상 설문

46개 제약사 가운데 평판도 1위

2013년부터 환자단체가 선정한
'최고의 제약사' 선정



의약품 접근성 지수 6회 연속 1위

2년마다 세계 상위 제약사 평가
(2018 의약품 접근성 재단)

항생제 내성 대응 1위

항생제 연구개발 민관협력체 발족 지원 등
(2018 의약품 접근성 재단)



All Trials Transparency Index 1위

제약사 최초 'AllTrials Campaign' 지지
임상연구 투명성에 대한 장기적 헌신 인정

백신 접근성 지수 1위

혁신적인 백신 개발 및 접근성 향상 노력
(2018 의약품 접근성 재단)



GSK 핵심 과제

Innovation based Performance

INNOVATION

현재 GSK는 호흡기 질환 및 HIV, 백신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이어가며 면역/염증, 비뇨기/탈모, 중추신경계, 피부 질환 등에 대한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한편, 면역학 및 인간 유전학, 첨단 기술에 집중된 차세대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 (Pharmaceuticals)

호흡기, HIV, 면역염증 및 종양학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며 다양한 혁신 신약 및 만성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또한, 면역학 및 인간 유전학, 첨단 기술에 집중된 R&D 전략을 통해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접근 전략

GSK는 차세대 의약품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면역체계와 관련된 과학 및 인간 유전학, 최신 기술(기능 유전체학, 머신 러닝, AI, 세포 치료)에 집중하는 새로운 R&D 전략을 채택했다.

‘과학 X 기술 X 문화 (Science x Technology x Culture)’를 결합한 이 전략은 GSK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의약품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공급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후보물질을 선별하여 획기적인 의약품의 개발 및 출시를 앞당기고 항암제와 같은 스페셜티 의약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프라인

GSK 파이프라인은 4개의 최첨단 과학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IDEAYA와 합성 치사(Synthetic Lethality)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합성 치사는 정밀 의학 종양학(Precision Medicine Oncology)의 신흥 분야이자, 종양학에서 GSK가 4대 핵심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면역항암

(immuno-oncology)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인간의 면역체계 활용

세포치료

(cell therapy)

암을 표적할 수 있는
인간 T 세포 엔지니어링

암 후성유전학

(cancer epigenetics)

암 억제를 위해 변형되는
후성유전체 유전자 조절 체계

합성 치사

(synthetic lethality)

암 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두 표적을 각각 조합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

GSK가 개발 중인 제약 파이프라인에는 39 개의 후보물질이 포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5 개의 항암제가 포함된다. 2018 년 대비 항암제 포트폴리오는 2 배 수준이다.

파이프라인은 8 건의 등록 건 수, 6 개의 긍정적인 중추적 연구(pivotal trial) 결과, 임상 2,3 상을 가속화하는 4 개의 우선 자산(priority assets)으로 강화되었다.

미국 FDA의 획기적 신약(Breakthrough Therapy) 및 유럽 EMA의 우선순위 의약품(PRIME)으로 지정된 GSK2857916(BCMA 항체-약물 결합체) 등 내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GSK는 2020년 5월에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ongress)서 자사의 종양학 포트폴리오의 성장 과정에 대한 과학적 혁신과 진보를 강조하며, BCMA 항체-약물 결합체와 관련한 DREAMM(Driving Excellence in Approaches to Multiple Myeloma) 임상 프로그램에 대한 초록 26 개를 공개했다. 또한, 6월에 열린 유럽혈액학회의 연례 총회(European Hematology Association Annual Congress)에서도 16 개의 발표내용을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미국의 항암제 전문기업인 테사로(TESARO)의 인수를 완료하며 관련 자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테사로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로 승인된 PARP 저해제, 개발 중인 PD-1 길항제를 비롯해 TIM-3, LAG-3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머크 사(Merck KGaA)와 함께 치료가 어려운 여러 암종에 대한 새로운 면역항암제 자산 M7824 (이중기능 융합 단백질)의 공동개발을 위한 제휴를 체결하는 등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GSK는 종양학 분야의 파이프라인과 세포 및 유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엘 이뮤노파마(Lyell Immunopharma)와의 5년간 제휴를 발표했다. 라이엘은 고형종양암의 반응률을 높이고 T 세포 탈진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한 T 세포의 '적합성' 개선을 연구하고 있다. GSK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 프로그램과 라이엘의 기술이 결합된다면, 고형암 세포치료제의 활성 및 특이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백신 (Vaccines)

GSK는 전 연령기에 걸쳐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백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매출을 보이는 리더이다. 의료적 수요와 시장 잠재력이 높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접근 전략

GSK는 백신 라이프라인을 생애주기 관리(life-cycle management), 새로운 커머셜 자산(new commercial assets), 글로벌 헬스 자산(global health assets) 3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사회를 위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GSK 전략에 부합하는 우선적인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 최적의 자원을 할당한다.

2019년에 GSK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대한 후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후보 백신의 진전을 이끌었다.



첨단 기술

15 개의 새로운 후보백신을 개발 중이며, 첨단 백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GSK의 독자적인 항원보강시스템, 자가증폭전령 RNA(self-amplifying messenger RNA: SAM), 바이오 접합체, 항원막 일반화 모듈(generalised modules for membrane antigens: GMMA),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플랫폼 등의 기술은 백신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의학적 미충족 요구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SK는 혁신을 지속하며 수십 년동안 **항원보강제(Adjuvant)** 기술 분야에서 산업을 이끌어 왔다. 면역 반응 강화로 이어지는 GSK의 항원보강제 기술 플랫폼은 GSK의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GSK의 AS01 항원보강제 기술을 통해 GSK의 대상포진 백신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RSV와 COPD 등 자사가 보유한 6개 라이프라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AS03 항원보강제 기술은 CEPI를 포함한 GSK의 파트너사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대응 및 협력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19년 8월에 임상 조사를 시작한 GSK의 **SAM 플랫폼**은 백신 연구의 리드 타임을 크게 줄이고, 더 빠르고 단순화된 제조를 가능하게 하며, 백신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19년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새로운 기술로는 **생체 접합체(bioconjugate)**와 **항원막 일반화 모듈(generalised modules for membrane antigens)** 등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에 대한 역량 강화

첨단기술은 GSK R&D 접근법의 핵심이다. GSK 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functional genomics, cell therapy 등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타겟과 의약품을 더욱 빨리 알아내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2019 년, 수많은 내부 임명을 통해 사내 역량을 선도 및 구축하였으며, 야심찬 목표와 함께 외부 파트너십도 발표하였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GSK 는 향후 5 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와 협력하여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에 특화된 최첨단 실험실인 '유전체 연구소(Laboratory for Genomics Research, LGR)'를 설립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는지 연구하고 유전학에 대한 이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CRISPR 기반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전적으로 검증 된 표적은 성공적인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기존보다 두 배 가량 높다. CRISPR 을 신약 발견에 적용하는 것은 R&D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23 앤드미(23andMe) LGR 프로그램은 2018 년 부터 진행되어 온 세계적인 유전자 분석 기업 23andMe 와의 협력을 통해 강화된 질병 관련 유전자 기능 식별 능력 및 잠재적 질병표적 검증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GSK 는 2020 년, 23andMe 와 함께 첫 번째 임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종양학, 면역학, 신경학, 심혈관계 전반에 걸쳐 8 개의 공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GR 은 또한 다른 유전학 및 유전체학의 관련성을 확장시킨다. GSK 소속 과학자들이 영국의 생어 연구소(Sanger Institute)와 협력하여 유전학적 불안정성(WRN RecQ Helicase)을 가진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합성 치사 타겟을 발견한 Open Target 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핀젠(FinnGen), UK 바이오뱅크(UK Biobank)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ViiV Healthcare 는네덜란드 기능 유전체학 프로젝트(Dutch Human Functional Genomics Project) 와 5 년 협력을 발표했다.



라이엘 이뮤노파마(Lyell Immunopharma) GSK는 항암 세포치료제를 개선할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생명공학기업인 라이엘 이뮤노파마(Lyell Immunopharma)와 5년 간의 제휴를 체결했다. GSK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프로그램과 라이엘의 기술을 결합하여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 및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GSK의 글로벌 R&D 집중국가

GSK 한국법인은 GSK 본사가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15 년 선정한 20 개의 ‘R&D 집중국가’ (R&D Foot-Print Countries) 중 하나로, 초기부터 후기 개발에 이르는 전 R&D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GSK의 연평균 R&D 투자액은 약 200 억 원에 이른다.

면역학과 항암 파이프라인 강화에 나선 GSK의 글로벌 R&D 전략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종양, 면역 질환 연구에 대한 집중을 높이고 있으며, 2017 년부터 연세의대 송당암연구센터와 차세대 항암신약의 공동개발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양한 암종에 대한 1~2 상 초기단계 임상개발 프로그램 및 중개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속적인 글로벌 임상 연구 투자 유치를 하고있으며, 지난 3 년(17 년~19 년)간 종양(혈액암, 고형암 등), 면역 질환, HIV 및 감염질환, 호흡기 질환(천식 및 COPD), 심혈관질환 (만성심질환, 빈혈)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글로벌 임상시험, 시판후조사, 비중재연구, 연구자 주도임상 등을 포함한 총 167 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500 여개의 국내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약 6,000 여 명의 한국인 환자가 참여하였다.



2020 년 5 월에는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향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치료제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기존에 GSK가 보유한 내부 제조 네트워크에 더해, 추가적인 제조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GSK는 오픈 이노베이션 접근에 따라 국내 학계 및 연구소, 정부기관 등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국내 주요 암센터 및 병원과 면역 항암신약을 공동개발 하고 있다. 일례로 2017 년 12 월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KoNECT)과 국내의 R&D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 지원 ▲국가 임상개발 프로젝트 자문 ▲임상연구 관련 최신 정보 및 학술 데이터 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Cancer-epigenetics 신약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초기임상연구(First Trial in Patient, FTIH)를 실시하고 있다.

PERFORMANCE

비즈니스 성장을 뒷받침 하는 신제품의 성과

GSK는 2019년 한해 동안 전세계에 약 23억 팩의 의약품, 7억 1천만 도스의 백신, 42억개의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을 공급했으며, 신제품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

2019년 GSK 그룹의 총 매출은 전년대비 8% (고정환율 기준) 증가한 약 338억 파운드(한화 약 51조 3천억 원)로, 제약 및 백신 영역에서 최근 5년 내 출시된 신제품이 38억 파운드(한화 약 5조 8천억 원) 판매고를 올리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제약 영역의 2019년 총 매출은 176억 파운드(+2% AER, +0% CER)였으며, 전세계에 매일 2백만 도스를 공급하고 있는 백신 영역은 72억 파운드(+21% AER, +19% CER)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신제품 주도의 성장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2015년 이래 출시된 호흡기 질환, HIV, 백신 영역의 신제품 8종이 2019년 제약 및 백신 사업 전체 매출의 31%를 이끌었다.

제조 및 공급망의 단순화와 경쟁력 강화

GSK는 제조 및 공급망을 단순화 함으로써 재무 성과와 안전성,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제품 및 시장 필요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명확한 책임소재와 작업속도의 향상을 통해 생산성 증가와 구매 절감을 가져오고, 전략적 관계를 중시하는 원료 공급업체(supplier)와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Pharma

지난 3년 간 GSK 공급망의 생산성은 20% 이상 향상됐으며, 2019년에 시행된 101건의 규제기관 검사에서 안전성, 품질, 규정준수 면에서 모두 만족할 평가를 받았다.



Vaccine

New GSK를 위해 2년 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GSK는 백신 제품과 파이프라인 모두를 서포트할 수 있는 백신 제조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예정이다.

GSK는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조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9년에는 GSK가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GSK는 데이터, AI, 디지털 모델을 활용해 자사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최적화 하고 비즈니스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GSK는 전세계 9개국에 12개의 백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입지 덕분에 최근 출시한 백신 신제품의 추가 생산력을 확보할 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세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SK가 매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백신은 2백만 도스에 달한다.

또한, 향후 수년 내 안정적인 공급력 향상을 위해 일차 항원 생산에서부터 패키징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쳐 여러 개선안을 시행 중이다.

GSK 핵심 과제

Trust

GSK는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의 기초 위에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과학 및 기술을 활용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주축으로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팬데믹 감염병의 창궐, 항생제 내성(AMR) 등의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GSK는 백신 플랫폼 기술을 발전시키고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GSK는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발병한 이래로, GSK는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의 과학기술과 전문성을 동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과 소비자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 후보물질 연구 및 생산 지원

GSK는 전 세계의 회사 및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백신 항원보강제 기술을 활용해 유망한 코로나 19 백신 후보물질들을 연구하고 있다.

4월 14일, GSK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사노피와의 협약 체결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세계 최대 백신 기업들 간의 유례없는 협력이 시작되었다. GSK와 사노피는 양사의 혁신 기술을 결합한 항원보강제 결합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 임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관련 규제 심사를 모두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2021년 하반기까지 백신 공급을 위해 필요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백신 개발 기간보다 상당히 단축된 일정이며, 코로나 19라는 긴급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양사 팀들은 모두 빠른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 중 하나는 통합 규모이다. 아직 개발 초기 상황이지만, 개발에 성공한다면 양사가 보유한 상당한 제조역량을 활용해 내년 말까지 연간 수백만개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SK와 사노피 모두 양사의 백신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개발하는 백신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GSK는 사노피뿐만 아니라 CEPI, 퀸즈랜드대학교, 클로버 바이오파마슈티컬스, 샤먼 인노백스 바이오텍 등과도 협업 중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GSK의 항원보강제 시스템을 활용해 성공적인 여러 백신들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항원보강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2021년까지 10억

도즈의 항원보강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 협력사에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항원보강제란 무엇인가?

항원보강제 기술은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기 위해 백신에 사용되며, 백신만 사용했을 때보다 감염에 대해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면역성을 촉진한다.

항원보강제 기술을 사용하면 도즈 당 필요한 항원의 양이 줄어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신약개발 위한 검사 및 연구

GSK 는 백신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검사 및 신약 후보물질에 관한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GSK 는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비어의 독자적인 단일 클론 항체 플랫폼 기술을 사용해 코로나 19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항체를 발굴하고, 기존 항바이러스 항체를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 검토를 마치면 양사는 향후 3~5 개월 내에 임상 2 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GSK 는 '**COVID-19 Therapeutics Accelerator**'라는 새로운 연구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Accelerator 의 목적은 제약회사와 학술기관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코로나 19 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GSK 는 코로나 19 에 대항하는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합물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GSK 는 현재 시판중인 약제와 개발 중인 의약품들이 본래 효능 외에도 현 판데믹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포트폴리오에는 잠재적인 직접 항바이러스 능력(direct anti-viral activity)을 가진 의약품과 코로나 19 로 인한 2 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가능성을 지닌 제품들이 포함돼 있다.



최전방 의료계 종사자 지원과 전문성 공유

GSK 는 UN 기구와 WHO 가 **설립한 'The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에 **1 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재단은 현 판데믹 상황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보호, 진단, 관리하는 WHO 와 파트너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금들은 현장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와 같은 필수 물품들을 지원할 것이다. GSK 는 추가로 여러 국가들의 진단 검사를 도울 수 있는 여분의 시약들을 기부하고 있으며, 여분의 PPE 또한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GSK 는 또한 우리의 의약품과 백신개발 및 공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사내에 의료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최전방에 일하고 있는 의료종사자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영업부는 PPE 와 진단기구를 전달하는 업무를 돕고 있으며, 구매 리더와 같은 전문인력들은 생산망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과학 기술을 활용한 세계보건 향상에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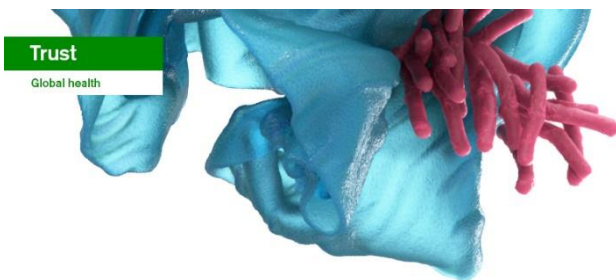
GSK 는 자사의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 어린이와 청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서부터 항생제 내성 대응 등 세계 보건 향상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3 대 우선질환

GSK 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감염병은 WHO 가 지정한 3 대 우선 질환인 결핵, 말라리아, HIV/에이즈이다.

GSK 는 3 대 우선질환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을 모두 연구하고 있는 몇 안되는 제약사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의 과학적 역량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민관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2020 년까지 17 가지 열대질환 중 10 개를 통제 혹은 퇴치한다는 WHO 의 목표에 동참해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결핵

결핵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최초 계열의 의약품 포트폴리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례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영국 국제개발부 등 후원 하에 비영리 과학기구 Aeras 와 결핵 후보백신을 개발 했다. 2018 년에 이 후보백신의

임상 2b 연구에서 긍정적인 중간결과를 발표한 이후, 최종 임상 2 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2020 년 1 월에는 결핵 질병부담이 큰 저소득 국가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에 라이선스 부여를 발표했다.



말라리아

GSK 는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보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및 PATH 와 협력하고 있다. 60 년 만의 삼일열 말라리아 첫 신약(성분명 타페노퀸)은 2018 년 7 월에 미국 FDA 로부터 승인을 취득했다.

한편, 최초의 말라리아 백신(RTS,S)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의 주 원인인 열대열원충 말라리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WHO 가 주관하는 예방접종시범사업에 공급된다. WHO-coordinated pilot programme 일환으로 말라위, 가나, 케냐의 선별 지역에서 RTS,S 말라리아 백신을 출시했다.



H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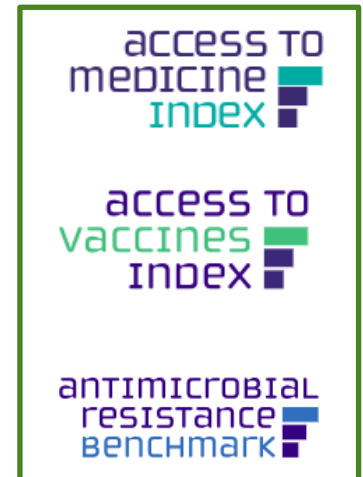
새로운 소아제형의 HIV 치료제 개발은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GSK 는 비브 헬스케어를 통해 여러 국제 연구단체와 자사의 HIV 치료제의 소아제형에 대한 임상개발을 진행 중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헌신

GSK는 책임 있는 가격 책정, 전략적인 접근성 계획 및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사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GSK는 2019년에 '의약품 접근성 재단'이 세계 상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의약품 접근성 지수(Access to Medicine Index)**에서 7회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발표한 **백신 접근성 지수(Access to Vaccines Index)**에서도 인정 받아 1위를 차지했다.

GSK는 의약품 보급 범위를 넓히는 접근성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획기적인 가격 책정 구조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경제수준을 고려한 **계층형 가격책정(tiered pricing)**, **의약품 기부**, **자발적 라이선싱 계약** 등이 포함된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선진적 접근

GSK는 최저개발국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제너릭 제조업체가 GSK 의약품의 제너릭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선진적 접근**을 시행한다. GSK는 접근성 전략을 이용해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인구 8억 명에게 의약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2018년에 이 접근성 전략을 세운 이래로, 1억 9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GSK 의약품을 사용했다.

GAVI 백신연합

최저개발국 면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GAVI 백신연합**' 등의 단체에 백신 최저가를 제공한다. 2019년에 GAVI 백신연합이 지원하는 10개국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GSK 페럼구균 백신을 낮은 가격으로 접종 받았으며, GAVI 백신연합의 AMC 계약에 따라 7억 2천만 도즈의 페럼구균백신을 공급했다. 또한, 다중연령 코호트 백신접종 프로그램(multi-age cohort vaccination programme)의 일환으로 약 12만 도즈의 GSK 자궁경부암 백신이 짐바웨에 공급되며 5만 4천명의 여자아이들이 접종을 받았다.

향후 5년간의 필수 자금 확보를 위한 파트너십을 위해, GSK 엠마 웜슬리 회장은 2020년 6월 4일 'Gavi's Global Vaccine Summit'에 참여하며 저소득 국가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의약품 특허 풀 (Medicine Patent Pool)

콜롬비아에 제공된 백신, 불가리아에 기부된 HIV 치료제, 브라질에 전달된 항생제 등을 포함해, 전세계 40개국에 1,090만 파운드 이상이 기부되었으며 30개국에 70만 개 이상의 PPE 물품이, 25개국에 6만 6천개가 넘는 물품들을 제공했다. (2020년 6월 기준)

폴리오 퇴치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세프에 2억 도스 이상의 백신을 공급하며 아동 4천 만 명이 접종 받았다. 비브 헬스케어는 UN이 후원하는

의약품 특허 풀 (Medicine Patent Pool) 등을 통해 돌루테그라비어에 대한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여 제너릭 제조업체가 더 많은 환자들에게 HIV 신약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비브헬스케어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HIV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기증한 최초의 제약회사로, 기초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2018 년부터 27 만 5 천갑 이상을 기부했다. 또한, 로타바이러스, 기흉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36 만 도즈 이상의 백신을 콜롬비아에 기증했다. 1999 년부터 소외열대질환의 통제를 위해 WHO 에 8 억 4 천만 정의 구충제를 기부하며 (최근 20 년 누적 89 억 정) 전세계 92 개국의 환자들을 지원했다. 국제 자선단체들을 통해 15 만 건의 필수약품(항생제, 흡입제 등) 기부를 제공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제 단체와의 협력

GSK 는 2025 년까지 1200 만 명을 목표로 질병 예방 및 인식,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제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2018 년에 접근성 향상 목표를 세운 이래로 파트너십을 통해 약 8 백만명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 현금 및 의약품 기부, 환자지원 프로그램, 임직원 자원봉사 시간을 포함해 전세계 지역사회에 대한 총 기부 가치는 2019 년 기준 2 억 6 천 3 백만 파운드에 이른다.

환자 지원

-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의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최신 생물학제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지원
- HIV, 루푸스, 감염병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또는 환자단체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협약

- **세이브더칠드런과 장기 협약**을 맺고 예방접종 확대, 의료접근성 및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등 소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 2019 년에 5 세 미만 어린이 약 114,000 명을 도왔으며, 2013 년 이래 지원받은 어린이 누적 수 약 3 백만 명
- 2019 년 어린이들의 감염병을 예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나이지리아에서 런칭

의료 종사자 교육

- **개발도상국**의 보건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일선의료 종사자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 등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세이브더칠드런 파트너십



GSK는 세계 빈곤아동 1백만 명의 생명 구호를 목표로 2013년부터 10년 간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소아용 의약품 개발, 예방접종 확대,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전달, 영양식품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직원들이 사내의 **오렌지 유나이티드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와 모금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CSR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46개국 290만명 아이들이 오렌지 유나이티드 캠페인을 통해 지원 받았다. (2020년 기준)

세이브더칠드런 ‘도시놀이터 개선사업’ 후원



국내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시가 아동들의 안전한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도심지의 노후한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놀이터를 지켜라**’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을 2017년부터 약 2년여간 후원하였다. 임직원과 회사의 매칭펀드 등으로 모금한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후원하여 진행한 본 프로젝트는 2018년 5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의 ‘개나리 어린이 놀이터’로 개장하여 지역아동들과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였다. 개장 100일 등 기념일을 맞아 회사의 임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주는 ‘학교놀이 개선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임직원의 월급 우수리와 월정액 기부, 다양한 자원봉사 및 회사의 매칭펀드로 모금한 약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후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GSK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발족한 TRUST BOARD 멤버들과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부의 일상화와 인적 봉사활동 추구

GSK는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공헌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국내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1만원 이하 우수리와 약정금을 기부하고 회사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해피스마일 펀드(2009~2015년, 기아대책기구와의 파트너십)에 이어 **오렌지유나이티드 펀드(2013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 파트너십)**를 운영한다. 2019년 GSK 한국법인이 회사 기부, 임직원 기부, 환자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후원한 금액은 최소 3억 2천만 원에 달한다.

GSK 한국법인은 2020년 5월 GSK의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트러스트 보드(Trust Board)**’를 구성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GSK 고유의 사회공헌 문화의 의미를 더했다. 트러스트 보드는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GSK가 진행해오고 있는 CSR 활동에 대해 직접 피드백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임직원이 보람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다.

GSK는 자선 트래킹 프로그램 **트렉 포 키즈(Trek for Kids)**, 자발적 모금 및 자원봉사 장려 주간 **오렌지 유나이티드**

워크(6월), 근무일 중 하루를 자원봉사에 활용하는 **오렌지 데이*** 등을 통해 재정적 후원을 넘어 다양한 인적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 파견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펄스(PULSE Volunteer Partnership)**는 GSK 임직원이 3~6개월 동안 비영리단체에 파견되어 보건, 교육, 환경 등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GSK 한국법인에서도 2012년, 2017년 참가자를 배출하여 아프리카 지역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장에서 6개월 간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오렌지데이(Orange Day)*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하루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GSK 사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GSK 직원들은 사내외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GSK 임직원들이 오렌지데이를 활용해 2019년 9월 개나리 어린이놀이터 개장 1주년의 한가위 송편 나눔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진행한 행사를 통해 GSK 임직원은 도봉구 주민과 함께 송편 만들기·명절음식 나눔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나눔의 즐거움을 체험했다.

환자중심 가치에 따른 환자단체 지원

환자중심 가치 (Patient Focused)는 GSK의 4가지 가치 중 하나로,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단체들과의 긍정적인 협력을 구축해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에 함께 하고자 한다.

GSK는 환자 단체 초청 강연, 환자교육 프로그램, 환자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환자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단체의 교육사업 지원, 직원의 교육 및 개발, 질병 인식개선 및 예방사업 협력 등에 기금을 지원한다.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제약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SK 한국법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공개하고 있다.

** GSK 기부금과 기금은 환자단체의 1년 운영 경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GSK는 환자단체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거나 GSK 제품을 홍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진적인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GSK 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Employee Engagement)를 높이고, 성별이나 나이, 인종, 종교, 성적취향 등에 상관없이 포용과 다양성(Inclusion and Diversity)이 살아 숨쉬며, GSK 안에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과제와 기업문화의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2 회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와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바탕으로 직원 몰입도와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안을 추진해 나간다.



렛츠톡

GSK 는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인 'Let's Talk' 세션과 Workplace 를 통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GSK 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지식과 관점을 더 빠르고 잘 이해하며, 더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헬스 앤 웰빙

GSK 는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을 위한 광범위한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세계 20 만 명 이상이 예방접종 등 최대 40 가지의 예방의료 서비스를 무상 또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 받는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에너지 레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기밀이 유지되는 임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me)을 등을 통해 심적 건강 관리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인재 개발

GSK 는 직원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본사차원에서의 특화된 우수인재 양성 코스, 해외파견 근무 기회와 함께 다양한 직무 교육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퓨처리더스(Future Leaders)** 및 **에스프리(Esprit)** 프로그램은 학부졸업생 및 MBA 석사를 채용하여, 3~4 년간 국내외 다양한 부서에서의 업무 경험을 제공해 빠른 속도로 리더 및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GSK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9 층
(한강로 2 가, LS 용산타워)
대표전화 02-709-4114

언론문의 seo.communications@gsk.com (대표)
so-young.s.sim@gsk.com
sang-won.w.ko@gsk.com

GSK 글로벌 www.gsk.com

GSK 한국법인 kr.gsk.com

소셜 미디어 채널 (GSK Global)





Our DNA